한 · 미FTA의 효과에 관한 小考

김종권*

Ⅰ. 한 · 미 FTA 필요성: 대한상공회의소(8.21) 설문조사 결과

<대한상공회의소(8.21)>

- 최근 서울 수도권 소재 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'한 · 미FTA 관련 기업의견 조사'를 실시한 결과, 65.8%가 '한 · 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'고 응답했음

- 특히, 도소매업종은 응답기업의 72.5%가 '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'고 응답해 다른 업종(제조 63.9%, 건설 57.7%)에 비해 한 · 미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

- 또,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(67.2%)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(65.2%)도 한 · 미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

- 이와 함께 한 · 미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후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'현재보다 호전될 것'(74.5%)이라는 응답이 '오히려 더 나빠질 것'(25.5%)이라는 응답의 3배에 달해 기업들은 한 · 미FTA의 성공적인 타결이 국내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
* 신흥대 경상정보계열 교수

Ⅱ. 한 · 미 FTA의 긍정적 효과

- 한 · 미FTA는 국민의 생활과 소득 수준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해 양극화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게 기본 목적(정부)

- 1.2% 경제성장, 10만 고용창출(동태적 : 자본축적, 생산성증가)
  서비스업 발전,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

- 단기: 0.79% 생산증가(3조 3천억원), 4만 고용증가
  장기: 4.53% (18조 7천억원), 21만 고용증가

- 섬유 의류, 자동차와 전기전자의 수출증가

- 대내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, 외국인 투자자유화, 지적 재산권 강화를 통한 산업의 구조조정

- 미국과를 축으로 한 FTA 거점국가의 형성

- 2003년 FTA 추진로드맵 발표, 조직보강, 2005년 본격가동

- 거대 경제권과 FTA를 위한 전초적 FTA 추진

- 미국-한국 → 중국, 아세안, 일본, EFTA, 캐나다, 멕시코, 인도 등
  EFTA: 유럽자유무역연합(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)

1. 산업자원부(8.24)

- 한 · 미FTA로 경쟁력이 있는 정보기술(IT), 전자, 반도체, 디스플레이등의 수출이 증가하면 이들 산업에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정밀화학산업의 내수시장도 늘어날 것임

2. 양국 소비자 이익증대 효과

- 양국의 소비자: 이익발생

- <우리나라>
  소비자는 선진 서비스와 1차 산업 생산품 및 원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음

- <미국>
  소비자는 2.5~20% 이상 싸게 한국의 자동차, 전기전자, 섬유제품을 살 수 있음

- 자유무역의 최대 장점은 소비자가 싼값에 양질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

- 노동연구원의 2005년 보고서는 농업 인구 종사자가 2020년까지 해마다 평균 2.19% 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

-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DDA, FTA 때문이 아니라 1차 산업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소득에 유리하다는 농부 2세들의 판단 때문임

- 한미FTA는 농수산업 등 비교열위 업종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임

- 동시에 그 농부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들에게 더 많은 제조업과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 제공

Ⅲ. 진행 중인 사항 및 향후 일정

1. 진행 중인 사항

-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우리 측이 미국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확 인됐음

- 8월 23일 미국은 싱가포르 협상에서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(포지티브리스트 제도)을 수용하는 대신 신약의 허가와 보험 등재, 경제성 평가 및 가격협상 등의 절차에서 독립적인 제3의 이의기구 설치를 요구함

- 이에 대해 우리 협상대표단은 이의기구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, 기구의 위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음